

끝나지 않은 공사, 여전히 '시끌'

지난 3일 개강은 했지만 학내 구성원들은 캠퍼스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 위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학림관 등을 포함해 내부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벗어날 수 없게 됐다. 특히 학림관 앞 교차로 일대는 공사현장에서 나는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록원은 개강일에 맞춰 3일에 오픈했지만 1층 톨매장과 분식매장은 공사가 끝나지 않아 통제됐으며 임대매장인 버거킹도 준비 지연으로 점심시간이 지난 후 문을 열었다. 이로 인해 점심시간에는 2층 학생식당에만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 혼잡한 상황을 만들었다.

또한 학교 변전소의 문제로 정전이 발생해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저녁시간에는 상록원 앞에서 김밥과 샌드위치를 나눠 주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림관의 경우 아예 개강을 3일에서 5일로 미뤘다. 개강 하루 전날인 지난 2일에야 전체학생에게 문자를 통해 이 사실을 공지했다. 이를 연기해 개강을 했지만 학림관의 내부는 건축자재 등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일부 강의실은 여전히 공사 중이었다. 5일 학림관 수업을 들었던 김지민(영어통번역2)은 "밖에서 나는 공사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닫고 싶었지만 강의실에는 마감재

소음·정전으로 학내 어수선
수강신청 정정기간도 연기돼
수업일수 줄어들 가능성 높아

남새로 머리가 아플 정도 였기에 문을 닫을 수도 없어 제대로 된 수업이 진행될 수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6일에는 한국전력 신당변전소의 문제로 학교 전체가 약 1시간 가량 정전이 지속돼 수업 및 학교행정상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당초 8월 26일까지로 계획된 공사가 이렇게까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 측은 가장 큰 원인을

방풍 많은 비가 내린 점을 들고 있다. 캠퍼스기획단 김용석 과장은 "지난 해보다 열흘정도 더 내린 비로 창문틀을 설치할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 들이닥치는 비를 막지 못해 내부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

으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학기 초 수강신청 정정기간에서 오는 혼란은 수강신청 정정이 끝나는 오는 12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학교 측은 종강일에 대해 공사로 지연된 만큼 미뤄지는 것 없이 예정된 학사일정대로 진행되며 강의보강 등은 담당교수 재량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홍인성(식품자원경제3)군은 "만약 보강을 따로 하지 않는 교수님의 수업이라면 실질적인 강의일수가 줄어들게 된다"며 시간부족으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상록원 공사는 지난 4일 완료돼 3층 교직원식당을 제외하고는 전부 오픈됐다. 학림관 및 만해관 내부 공사는 지난 주말 마무리 작업을 끝내고 오늘부터는 깨끗한 환경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이영호(회계3)군은 "외벽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지만 공사로 인해 수업에 방해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석 과장은 "금요일 오후와 주말 동안 주로 공사를 진행해 수업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암흑의 순간' ... 지난 6일 한국전력 신당변전소 내 가스절연개폐장치 고장으로 인해 학교전체가 약 1시간 가량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학교는 은행 및 각 행정부서에서 각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정전된 후 침묵에 들어오는 빛을 통해 글을 읽는 여학생의 모습.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9월중 새로운 교수실적지표 발표

'개인성과지표계약'은 철회 ... 단과대학장 책임 커져

이번학기부터 새롭게 시도되는 성과평가시스템의 시행을 앞두고 학교 측과 교수들 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3일 학교 측은 성과평가시스템과 관련한 단과대별 상황보고 및 회의자리를 다함군 세미나실에서 가졌다. 이날 회의는 오영교 총장과 한진수 부총장 및 교무위원, 단과대학장, 주임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각 단과대별 개인성과지표 계약 현황보고, 총장·교수 간의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단과대별 교수계약현황보고에서 각 단과대학장은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는 성과평가시스템의 개인성과지표계약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대다수 교수들의 의견을 전했다.

이에 오 총장은 "교수들 개개인으로서 반대함을 밝히는 것이 아닌 교수회에 위임장을 제출해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교수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7월까

지 연기했던 개인성과지표계약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단과대 평가는 계약대로 진행하고 개인별 지표에 관한 부분은 각 단과대학장에게 자율적으로 맡겨 단과평가에 반영하겠다"며 "9월 중 교수실적에 관한 새로운 지표 발표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는 김나년(경제학) 주임교수는 "5개를 고를 수 있는 성과지표는 한 분야만 잘하는 교수보다 평균적으로 조금씩 해놓은 교수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오 총장은 "이것은 성과평가지표의 기술적인 사항일 뿐 성과평가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개인성과지표에 참여한 교수에게 어드벤처를 준다고 발표된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교수들은 "단순히 계약에 참여했다고 어드벤처를 준다는 것은 공정한 기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입

장을 보였다.

한편, 교수회(회장=이종욱·경영정보학)는 이러한 총장의 발표에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향후 성과평가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발표 예정인 교수들의 실적 및 단과대학별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 회의 참석자들조차 이해한 바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교수회는 오 총장이 새로 발표할 성과평가시스템과 인센티브 제도 및 인사제도가 확정될 때까지는 성과평가시스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을 밝혔다.

이번 주 중 경영평가팀(팀장=김승용·경영학)은 교수들의 실적 및 성과평가시스템의 새로운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지표가 성과평가시스템의 시행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어 교수회를 포함한 모든 교수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동국 108리더스 프로그램 리더십에 대한 관심 높아

학생들 긍정적 호응 ... 일정차질은 해결해야

학생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지식을 겸비한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기획한 예비 동국108리더스(이하 108리더스) 학생들이 방학 동안 3박 4일간의 취업캠프와 9박 10일 일정의 캄보디아 해외봉사연수를 마쳤다.

학생취업지원센터(센터장=손재영)는 지난 6월 330명의 학생이 108리더스 모집에 응시한 가운데 최종 120여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이 중 인턴십 및 공무원 시험 등으로 11명의 학생이 중도 하차한 이후 현재 총 109명의 학생이 108리더스 교육과정을 밟고 있다.

108리더스로 선발된 학생들은 기본적인 리더십 기초교육으로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HRDP) 취업캠프와 해외봉사연수, 리더십 전문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리더십 심화교육과 33시간 이상의 사회봉사를 수강신청 외 학점으로 각1학점씩 이수한다. 이외 성적 3.0이상, 토익 650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108리더스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108리더스 교육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자기소개서와 모의면접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HRDP취업캠프 외에도 특히 해외봉사 연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지난 달 14일부터 31일까지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캄보디아 해외봉사연수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봉사 일정을 기획해 진행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돌감놀이와 같은 교육봉사와 인근 마을의 우물파기 및 소규모 조각장 등을 만드는 노력봉사를 했다.

하지만 봉사활동의 계획 시 현지 사정에 대한 사전정보가 학생들에게 더 많이 필요하다

는 의견도 있었다. 하태호(정보통신공4)군은 "당초 같은 조 학생들과 교육봉사를 준비했었으나 현지사정과 맞지 않아 대부분 노력봉사를 하게 돼 아쉽다"고 했다.

이번 학기 108리더스 교육은 본격적인 리더십 심화교육과 사회봉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1주일에 한번씩 16주간 이뤄지는 심화교육은 "108리더스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지만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 많아 유익했다"며 "취업이 얼마 남지 않은 4학년이 시작하는 것 보다는 2, 3학년때 부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다. 당초 해외봉사연수는 중국과 캄보디아로 나눠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일정차질의 이유로 해외봉사연수를 여름방학에 신청한 60명 학생 전원이 캄보디아로 연수를 다녀왔다. 또한 원래의 일정보다 1주일이 연기돼, 토익시험과 한자 급수시험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108리더스 프로그램이 3개월 여 진행된 현 시점에서 리더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108리더스는 앞으로 매년 모집할 예정이며 2기 모집은 올해보다 앞당겨질 예정이다.

선담은 기자
ssundam@dongguk.edu

도서관 '저자와의 대화', '문학기행' 등 실시

중앙도서관(관장=석원경·화학)에서 △저자와의 대화 △영화감상 토론 △도서관 문학기행 행사를 진행한다.

학내에 책읽기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개최했던 저자와의 대화가 지난 학기에 이어 '나의 달콤한 도시'의 정이현 작가와 진행된다. 이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중앙도서관 AV실에서 진행되며 강연과 함께 사인회도 함께 이뤄진다. 선착순 80명을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모집하며 '작가에게 묻고 싶은 한마디'를 중앙도서관 이메일로 보내 참신한 질문으로 채택된 학생에게는 문

화상품권이 지급된다. 또한, 정시에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추첨해 책과 상품권을 증정한다.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은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를 선정해 오는 17일 중앙도서관 사회과학실 특수자료실에서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조종홍(영화영상학) 교수가 진행하며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11명을 접수받고 있다. 또한 신청자는 관련도서를 읽어와야 하며, 영화 감상 후 입장권을 당일 제출해야 한다.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문학기행은 강원도 만해마을을 찾아간다. 이와 관련한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기획
한뼘 높아진 하늘
한뼘 깊어진 지성
관련지면
4면 기획면
- 이색서점 탐방기
- 북마스터 인터뷰
- 독자추천도서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모집인원 : 0명
응시자격 : 1학년 재학생
원서접수 : 9월 17일(월) 오후 5시까지 마감
전형일시 : 9월 17일(월) 오후 6시
원서배부 : SC제일은행 옆 본관 1층 동대신문사 사무실
http://www.dgupress.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 : www.dgupress.com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TEL: 02)2260-3491~2 E-mail: dgupress@dongguk.edu
혜택 : 소정의 활동비, 장학금 지원
교내 국제교육원 주관 어학특강 방중 무료 수강,
언론 교육기관 무료 수강
*보호자 월 보령료 5만원 이하인 학생인 경우 등록금 전액 감면

동대 학술상·문학상 작품 모집
제45회 동대 학술상 작품 모집
1. 모집분야 : 인문과학상, 사회과학상, 자연과학상
2. 응모요령 : 3개 분야 모두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3. 시상 : 각 분야별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제22회 동대 문학상 작품 모집
1. 모집분야 : 시부, 소설부, 희곡·시나리오부
2. 응모요령 : 시부문 3편 내외
소설부문, 희곡·시나리오부문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3. 시상 : 시 장원 1명 50만원, 가작 1명 30만원
소설부문, 희곡·시나리오 각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30만원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출판 : 10월 22일(월)~11월 9일(금)까지 직접·우편 접수 (전자우편, 팩스 접수 불가)
입상발표 : 2007년 11월 26일자 동대신문(예정)
문의 : 02)2260-3491~2

법학전문대학원 유치계획 ‘파란불’

친디아 특성화부문, 불교계 지원 등 ... 교원확보 힘써야

지난 7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학교의 유치 준비도 가속화 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입학정원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교육부는 대학 당 최대 정원을 150명으로 제한, 정원 50명의 ‘미니 로스쿨’도 인가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 경우 로스쿨 인가 대학의 할당수가 늘어나, 더욱 많은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11월까지 인가신청을 받고, 내년 3월 예비인가를 시작으로 2009년 3월 개원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은 69 항목,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다. 이 중 교육과정과 교원에 대한 평가부분이 485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많은 대학들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시설 인프라와 재정부분은 225점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의 대외적인 평가는 시설과 같은 외형적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 중

요소를 간과할 수 없다.

우리학교는 현재 15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정원 100명 로스쿨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30억 원 이상 투자를 진행해 최상의 교육환경 구축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시설인프라=로스쿨 전용건물과 전용도서관, 모의법정은 로스쿨 인가 기준의 필수 항목이다. 이에 우리학교는 만해관 1, 2층의 공간 조정을 통해 법대 전용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4억 원 상당의 법학관련 장서를 구입하고, 만해관 열람실의 리모델링을 모색하는 등 법대 전용도서관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의법정은 현 수준에서 리모델링 공사 계획이 잡혀 있다.

▲교원=현재 우리학교는 25명의 교원을 확보하여 교원 인가 기준을 충족한 상태이나 앞으로 33명까지 교원을 더 충원할 예정이다. 특히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교원이 전체 교원 중 20%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기준에 따라 현재 2명

인 실무교원을 늘리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연구 성과가 교원 평가 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최근 각 대학마다 연구업적이 뛰어난 교원을 타 대학에서 빼오는 방식의 공격적 영입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학교의 경우 이번 학기 전공 수업을 맡기로 한 4명의 교원이 지난달 말 타 대학으로 영입되면서 개강 후 대부분의 전공수업이 1주일 동안 휴강되는 등 파행이 벌어졌다.

▲특성화=로스쿨의 특성화는 인가기준평가에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사항이다. 현재 수도권 소재 대학 중에서 눈에 띄는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은 이화여대와 우리학교 정도다. 우리학교는 친디아(Chindia=China+India)법 분야와 전통적인 강점분야인 경찰행정학과 연계한 국제형사 사법 분야를 특성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친디아 법 분야 특성화를 발판으로 중국 해양대학교 이미 교류 협정을

맺었고, 우리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인도 네루대학교 보다 심층적 교류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미국 알마니 로스쿨 등 교류대학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불교계의 지원 아래 안정적인 로스쿨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학교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로스쿨 유치 시 학교는 정원의 30%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우리학교는 조계종 25개 전국교구본사에서 로스쿨 장학생들을 뽑아 전액을 지원하고, 이들이 졸업 후 교구본사에서 법률전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계 전폭적인 지원 아래 우리학교는 다음 달 종정예하 등 불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가운데 로스쿨 기원 유치 대회를 연다. 이 법회는 학내 구성원과 불교계가 뜻을 한데 모아 우리학교의 로스쿨 유치 성공에 큰 힘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글쓰기 센터 교육부장 김승호(국어교육) 교수 인터뷰

“학생들의 다양한 글쓰기 도울 것”



-글쓰기 센터를 개소하게 된 취지는.

=글쓰기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오늘날 꼭 필요한 능력이다. 실제로 대기업 취업과 입교공사 등에서도 논술전형이 빠지지 않고 있다. 더 이상은 글쓰기를 피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글쓰기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또 자신의 글을 지도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이번에 글쓰기 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

-글쓰기 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학생들이 직접 글쓰기 센터에 찾아와 첨삭을 받는 프로그램과 이메일을 통한 상담 형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요즘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조교와 직접 대면해 지도 받는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

라고 생각한다. 맞춤법과 같은 기본적인 것은 물론, 구성과 논지 전개 방식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계획.

=우선 학생들의 보고서 작성에 대한 첨삭과 상담을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하지만 글쓰기 센터는 어느 한 유형의 글쓰기만이 아닌 다양한 글쓰기를 도울 예정이다. 향후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논술형 답안 작성법이나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등 학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또한 유명작가의 글쓰기 특강 등을 열어 글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겠다.

선담은 기자
ssundam@dongguk.edu

인전부터

필수chapter 수강정정

○...나의 시간표는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계열별로 수강정정’ 공지에 띄우면 그만이라.

수강신청전쟁을 뚫고 선택한 교수님도 안녕. 같이 듣기로 한 친구도 안녕. 불정정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라.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짜증나 서러워라.

이밤사 귀포리도 함께 지냈던 수강신청인데 나의 시간표는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편식도 가지가지

○...10살의 김동국, 집에서... “엄마, 나 소세지 반찬 줘. 시금치는 맛 없어.” “너 녀석아, 시금치 같은 것도 먹어야 속속 크지.” 20살의 김동국, 대학교에서... “야 역시 판타지나 일본소설이 재밌지 않냐? 경제, 과학서적은 너무 따분해.” “...” 똑같은 편식으로 후회하시겠어요?

수신번호 0000-000000

○...살다보면 그런거지 우후 말은 안되지 개강전날 예고없이 도착했던 문자한통 ‘학림관 배정강좌 개강일이 늦춰진다’ 늦춰지면 제대로하나 5일 날 수업 갖더니 내부공사 여전하고 수업은 안 들리고 우리는 수업해야해 등록금은 올려놓고 문자하나 던져놓고 학생들의 양해바라

함성의 이유

○...개강 후 첫 수업시간. “김동국, 이해화, 박병진, 최학림... 다음시간은 휴강입니다.” 이 말에 터져 나오는 함성들. “예스”, “야”, “나이스”, “와”, “최고다”,... 여러분 이름 불러준 거에 감동하신 거죠? 값비싼 강의 하나가 날아간 게 즐거웠던 건 아니죠?

9월 총학생회 문화사업

오는 14일 제 39대 총학생회(회장=정형주·통계4) 주최로 ‘동국인을 위한 시네마 데이’가 롯데시네마 에비뉴엘관에서 열린다. 이번이 지정된 영화는 ‘두 얼굴의 여친’으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상영된다. 신청은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11일까지 받고 있으며, 신청한 학생들 중 학생회비를 납부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부여된다. 당첨된 학생은 영화 상영 전날인 13일까지 학생회관 1층 총학생회실에서 표를 수령하면 된다. 한편 총학생회는 제 3회 목욕가호예 선접수를 이달 16일까지 받는다. 신청방법은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휴학생 등을 포함한 모든 동국인이라면 참가할 수 있다. 참가 부문은 기존 가요, 팝송, 창작곡 모두 가능하다. 본선은 다음달 11일 오후 6시 만해관 특별무대에서 열리며, 수상한 팀에게는 총 35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주어진다.

숨은 동국 찾기

지금 이 어느시대 입니까??

비오는 날 문화관은 1960년대로 돌아갑니다.

김나리 기자
vik126@dongguk.edu

동국교에서.

忘本

논어의 ‘선진편’에 나오는 이야기. 자로가 여쭙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곧 실행해야 합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부형이 계신데 어찌 여쭙지 않고 듣는 즉시 바로 행하겠습니까?” 염유가 여쭙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곧 실행해야 합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아무렴! 듣는 즉시 행해야지.” 그러자 공서화가 여쭙었다. “자로가 물으니 ‘부형이 계시다’ 하고, 염유가 물으니 ‘즉시 행하라’ 하시니 혼란스러워 감히 여쭙겠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염유는 물러서기 때문에 나아가도록 한 것이고, 자로는 남보다 지나치기 때문에 물러나게 한 것이다.” 이른바 ‘사람에 따라 가르침을 다르게 베푸는’ 공자의 교육 방법이다. 교육문제는 우리사회 제일의 화두이자 관심인 동시에 가장 모순적 문제이다. 초·중등교육

은 입시지옥, 고등교육은 취업준비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진리의 상아탑’ 또는 ‘비판적 지성의 전당’과 같은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들이 상당히 퇴색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학에서 교수에게 반드시 보장돼야 할 학문연구의 자율성과 교수법의 고수, 학생들이 두려워 선택적 교육에 대한 권리 또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우리학교 필수교양강좌의 경우 같은 과목이 적게는 2개부터 많게는 10개 이상 동시에 개설된다. 작문과발표, 고전세미나 등의 필수 교양과목은 과목별 책임교수를 정한 다음 책임교수 주제 하에 강좌를 맡게 될 교수들이 모여 수업에 대한 회의를 하고 ‘공통강의계획서’를 만든다. 한 과목을 분반한 것이기 때문에 수업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결국 수업방법과 진도를 ‘표준강의’대로 맞추어 나가자는 의도다. 획일화된 강의계획서

를 뽑아 막상 수업에 들어가면 담당 교수는 자신만의 개별 강의계획서를 다시 나눠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은 똑같은 교과서와 정해진 진도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배제하며 오직 ‘대학입시’만을 목표로 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공통강의 계획서’는 획일화된 교육의 연장선이 아닐까. 같은 과목이라도 가르치는 교수에 따라 교수법이 다르고 들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자신이 연구하고 개발한 교육방법이 바뀔 수 있다. 또 학생들은 교수 개개인의 독특한 색깔이 있는 수업스타일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학문에 대한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는 대학의 본질을 어찌하면 우리는 잊고 있지 아니한가.

최미혜 기자
lmisonaral@dongguk.edu

불교대 J교수 학생장학금 횡령 파문

불교대 J교수가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단법인 동국대학교 불교장학회 장학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어 학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일 한진수 부총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재단법인 동국대학교 불교장학회의 이사장직을 맡아온 J교수가 장학기금 1억 3천 60여만원의 3년치 이자인 750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한 부총장은 J교수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또한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사회를 진행한 적도, 감사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88년부터 모아진 장학기금의 원금인 1억 3천 60여 만원에 대해서도 서류상으로는 지급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불교대 학생회장인 해공스님(선학3)은 지난 달 17일 오영교 총장과 학교에 학교에서 7명을 선정해 4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해 왔었다. 88년부터는 학교에서 지급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장학회 내부에서 관리해 오고 있다.

김나리 기자
vik126@dongguk.edu

원금을 늘리기 위해 별도 관리를 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교장학회의 이사장직을 맡아온 J교수가 장학기금 1억 3천 60여만원의 3년치 이자인 750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한 부총장은 J교수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또한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사회를 진행한 적도, 감사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88년부터 모아진 장학기금의 원금인 1억 3천 60여 만원에 대해서도 서류상으로는 지급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불교장학회는 지난 1960년도 백성욱 총장에 의해 세워져 87년 2학기까지 외부장학의 이름으로 학교에서 7명을 선정해 4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해 왔었다. 88년부터는 학교에서 지급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장학회 내부에서 관리해 오고 있다.

김나리 기자
vik126@dongguk.edu

오늘부터 생협 한가위 귀향버스 신청

오늘(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생활협동조합(이사장=박상진·생명화학공학, 이하 생협)에서 주관하는 한가위 귀향버스 신청을 상록원 일과 인터넷으로 받는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는 현장접수와 함께 생협 홈페이지(http://dgucoop.dongguk.ac.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출발 날짜는 오는 22일이며 주요 광역시를 비롯한 14개의 도시를 운영한다. 출발 당일에는 도시락과 기념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환불은 접수기간과 동일하다.

총학생회 닷새간 ‘클린동국 캠페인’ 진행

정형주·통계4) 주최로 열리는 이번 캠페인은 △차 없는 날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불법 광고 및 현수막 제거 △도서관 에티켓 지키기 △쓰레기 소음 유발 방지 등의 내용이다.

캠페인 첫 날인 10일에는 서울시가 진행하는 차 없는 날을 맞아 긴급차량 제외한 모든 차량의 교내 진입 자제를 요청한다. 11일에는 쓰레기와 담배꽂이 등의 무단투기 자제를 당부하는 피켓운동을 열 예정이다.

다음 날인 12일은 학내 불법광고와 현수막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13일에는 문화평론가 진중권 교수의 강연이 열린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교내 환경개선 및 소음발생 유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학내 구성원들의 의식 함양과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클린 동국 캠페인’이 오늘(10일)부터 닷새간 진행된다. 제 39대 총학생회(회장=

2007년 한가위 귀향버스 노선안내

순번	대 수	노 선	일반고속 가격	조합원	비조합원
1	2	밀양-부산	19,800	10,000	14,000
2	1	울산	19,700	10,000	14,000
3	1	진주-사천-통영-거제	18,800	9,000	13,000
4	2	미산-김해-청원-진해	18,400	9,000	13,000
5	2	포항-경주	18,600	9,000	13,000
6	2	김천-구미-대구	14,600	7,000	10,000
7	1	원주-제천-영주-인동	8,400	4,000	6,000
8	1	평양-여주	20,600	10,000	14,000
9	1	순천-별교-고흥	18,900	9,000	13,000
10	2	경주-무안-목포	17,600	9,000	12,000
11	1	군산-정읍-고창	12,600	6,000	9,000
12	1	전주-남원	12,900	6,000	9,000
13	1	대전-공주-논산-익산	8,200	4,000	6,000
14	1	속초-강릉-동해-삼척	14,900	7,000	10,000
기타내용			원주 : 조합원 3,000원 / 비조합원 5,000원 적용		

* 일반고속 가격대비 조합원 50% 할인, 비조합원 30%할인 적용
* 단, 각 노선별 접수인원이 20명 미만시 해당 노선은 취소됩니다.

사범대학 임용고사 학습동아리 모집

사범대학(학장=김해숙·국어교육) 학사운영실은 지속적인 면학분위기를 유지하고자 ‘임용고사 학습동아리’를 신설했다. 이달 14일까지 임용고사를 준비 중인 사범대학 소속 2~4학년 재학생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중이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학부생은 김효정(hyo411@dongguk.edu) 직원에게, 교육대학원생은 박현태(hyuntea@dongguk.edu)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러시아 속에서 '한국의 기억'을 더듬다



①

추운 날씨, 공산주의 체제의 어두움이 아직도 진하게 남아 있을 것 같은 나라.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러시아를 다녀왔다. 동대신문사는 항일유적지 탐방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동남쪽에 위치한 극동 지방을 탐방하고 왔다. 5박 6일로 이뤄진 이번 일정은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를 거쳐 우스리스크로 이어졌다.

속초에서 자루비노항으로 가는 배를 타고 18시간 동안의 여정으로 도착한 러시아의 첫 느낌은 제법 쌀쌀한 바람과 함께 다소 무거운 느낌이었다. 어두운 건물톤과 제복을 입은 군은 군인의 표정에서 아직은 사회주의의 폐쇄적인 느낌이 그대로 묻어나는 듯 했다.

자루비노 항구에서 구불구불한 길을 4시간여 간 후에야 우리의 첫 목적이인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할 수 있었다. 블라디보스톡은 아무르만을 따라 시원하게 뻗은 해안가가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다. 또한 이곳은 신한촌, 안중근 의사비, 세계 최고 규모

의 한국학 대학 등으로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은 곳이기도 하다.

우리가 먼저 들른 곳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집단 거주지인 신한촌이었다. 일제 강점기 초기에 항일 민족지사들의 독립운동 중추기지로 발전했다는 이곳은 세 개의 탑과 그 위에 놓여진 꽃다발만이 그 옛날을 떠올리게 했다.

신한촌을 뒤로하고 우리는 안중근의사 기념비와 블라디보스톡 요새를 거쳐 독수리 전망대에 도착했다. 산의 높이는 그리 높지 않았지만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 한복의 그림을 우리에게 선사했다. 여기서 신기했던 것은 결혼식 웨딩촬영과 피로 연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전망대에서 삼페인을 터뜨리고 친구들과 결혼을 축하하는 모습은 우리나라 결혼식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독수리 전망대에서 내려와 우리는 다음 행선지인 하바롭스크로 가기 위해 블라디보스톡 역으로 향했다. 말로만 들던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게 돼



② 블라디보스톡역의 시베리아 횡단열차
③ 이상설의사 유허비
④ 신한촌기념비
⑤ 하바롭스크 성모 승천사원에서 필자

우리는 괜히 맘이 설됐다. 횡단열차 안은 2층침대 2개로 이뤄진 4인 1실이었었는데 침대 사이 공간과 침대간이 좁고 햇을 공간이 화장실 세면대가 전부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기에는 무척 불편했다. 열차 내에서 처음 마주친 사람들과 한칸에서 하룻밤을 지낸다는 것이 낯 선 이방인인 우리에게겐 생소했지만 일상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러시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2층 침대칸에서 자던 기자 한명이 '픽' 소리와 함께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 아래는 외국인 부부가 자고 있었는데 떨어지면서 난 소리에 놀라 잠에 깬다. 그들은 선뜻 자리를 바꿔주겠다고 말하며 1층에서 자라고 했지만 그 기자는 괜찮다고 했다. 인종과 나라는 달라도 사람간에 오가는 '정'은 어떤 나라든지 비슷한가 보다.

이러한 해프닝 속에서 우리 여행의 네 번째 아침을 하바롭스크에서 맞이했다. 하바롭스크는 블라디보스톡과 달리 유럽의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곳으로 고풍스런 유럽풍의 건물들과 높은 그리스식 기둥이 즐비한 곳이었다.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마친 우리는 아무르강 전망대로 갔다. 하바롭스크에서 오희츠크에 까지 뻗어있는 광대한 아무르강의 옛이름은 '흑룡강'이라고 한다. 드마라 주몽에도 자주 등장했던 이 곳은 고구려의 역사적 무대였던 곳으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곳이다.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과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러시아 사람들 속에서 옛 고구려의 흔적은 찾아 볼 수도 없는 이곳이 괜히 아쉬웠다.

러시아는 유목 전쟁에 관련된 유적지가 많은데 크고 작은 전쟁과 혁명이 많이 일어났음을 암시해 주고 있었다. 러일 전쟁기간 동안 제대로 구축된 블라디보스톡의 요새, 전쟁박물관 등이 그랬다. 하바롭스크에는 2차 대전에 전사한 군인과 소비에트 영웅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명예광장'이 있었는데 거대한 기념비와 그 옆에 꺼지지 않는 불꽃에 숙연한 마음이 들어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다음 행선지인 우스리스크까지도 횡단열차를 타고 이동했다. 뻥뻥한 일정과 횡단열차의 열악한 세



면시설로 인해 제대로 씻지 못한 다른 학생 기자들은 힘들어 했다. 이런 와중에 생활력 강한 일부 기자들은 기차안에서 나눠준 컵으로 물을 받아 머리를 감았고, 나는 그 컵으로 머리로 감고 샤워까지 했다. 러시아 여행 중에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탈 계획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열차 안에서 씻기 힘들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스리스크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들른 곳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참석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독립운동가, 이상설 의사 유허지였다. 이상설 의사 유허지 방문은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지 100년을 맞이하는 해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하지만 무성하게 영진 잡초더미 속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기념비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독립운동가의 애환과도 닮아 애잔함을 더했다.

우스리스크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까레이스크'로 불리는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소수민족들과 함께 가혹한 분리·차별정책에 휘말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고 한다. 탐방 중에 마주친 고려인들은 우리말을 익숙하게 잘했지만 러시아 현지 문화에 많이 융화된 모습이었다.

우스리스크를 마지막으로 우리는 탐방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탐방을 통해 나는 '러시아라는 베일에 쌓여 있는 나라는 우리 민족의 눈물의 역사와 역사적 아쉬움을 간직한 곳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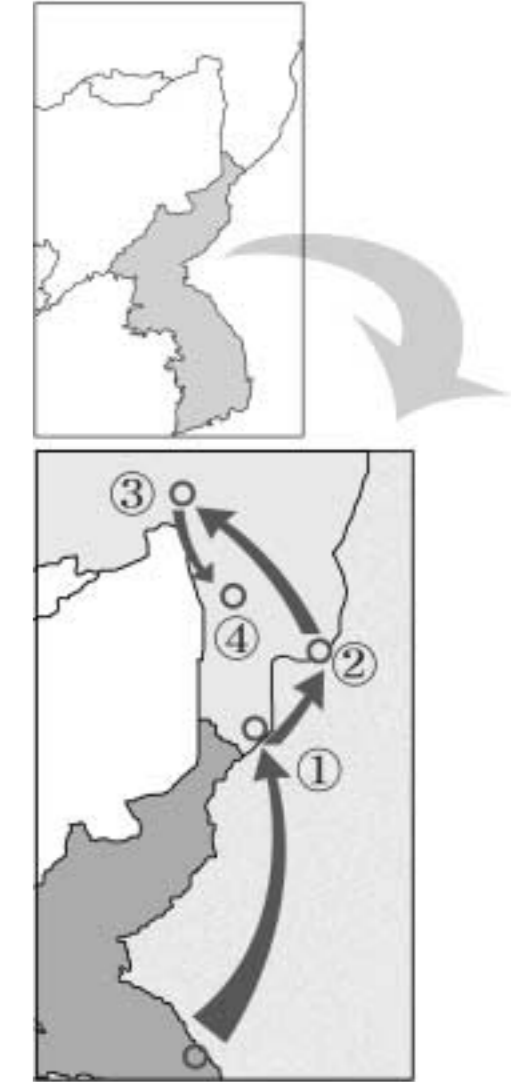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 이송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러시아 항일유적 탐방과 고구려 충무역사 탐방

동대신문사는 지난 방학기간 동안 러시아 항일 유적지 탐방과 고구려 유적을 탐방취재했다. 지난 헤이그 특사 탐방기에 이어 이번호에는 러시아 극동지방과 중국 동북지역의 생생한 역사탐방 결과를 보도한다.

편집자

러시아항일유적탐방경로



- ① 자루비노 항구
- ② 블라디보스톡 : 신한촌, 안중근의사 기념비, 블라디보스톡 요새, 독수리전망대
- ③ 하바롭스크 : 아무르강 전망대, 레닌광장
- ④ 우스리스크 : 이상설 의사 기념비



①



② 윤명철 교수와 '꿈틀꿈틀 고구려 탐방단'
③ 광개토태왕비
④ 장수왕릉

삼죽오는 예로부터 용도 잡아먹는 신비의 새였다고 한다. 삼죽이를 국조로 삼은 고구려의 위용은 과연 어디까지였을까? 고구려의 역사를 직접 만지고 느끼기 위해 중구청 고구려 탐방 장학으로 선발된 14명의 학생들과 본 기사는 5박6일의 일정으로 '고구려 역사 탐방'을 다녀왔다.

우리학교 '꿈틀꿈틀 고구려 탐방단'은 주몽이 부여를 떠나 고구려의 첫 도읍을 정한 것으로 추정

삼죽오 찾아 고구려로 !!

동북공정 본질 직시할 수 있는 기회

되는 오녀산성 999계단을 오르는 것으로 답사를 시작했다.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후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게 된 오녀산성은 고구려 성의 특징인 웅성구조가 잘 보존되어 있다. 웅성이란 문자 그대로 적군이 이곳에 들어오면 '뚝' 안에 든 쥐' 처럼 사면에서 공격을 받으며 밖으로 빠져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이 구조는 성문이 적군의 공격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성문 바깥에 향아리 모양의 성벽을 덧붙여 성벽을 이중으로 쌓아 방어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수 천 년이 지난 지금도 완벽한 보존 상태를 자랑하는 웅성구조는 고구려인 특유의 견고한 성 축조술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오녀산성이 고구려 태동의 시초라면, 광개토태왕대왕비는 문화적, 정치적으로 찬란히 꽃피웠던 고구려 황금기의 상징이다. 고구려 백성들과, 정복과정을 통해 복속시킨 백성들 및 미래 후손들에게까지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광개토태왕비는 15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신비함을 넘어 신성함을 느끼게 한다. 자연석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비문을 새긴 광개토태왕비는 아직도 살아 숨쉬며 고구려의 후예들이 우리를 품어주었다. 비를 바라보는 탐방단에게 윤명철(교양교육원) 교수는 "동아시아 문화의 코어(core) 역할을 당당히 해낸 고구려인들의 기상과 민족적 자긍심을 느껴보라"고 말했다. 한편, 탐방기간 동안 오녀산성, 광개토태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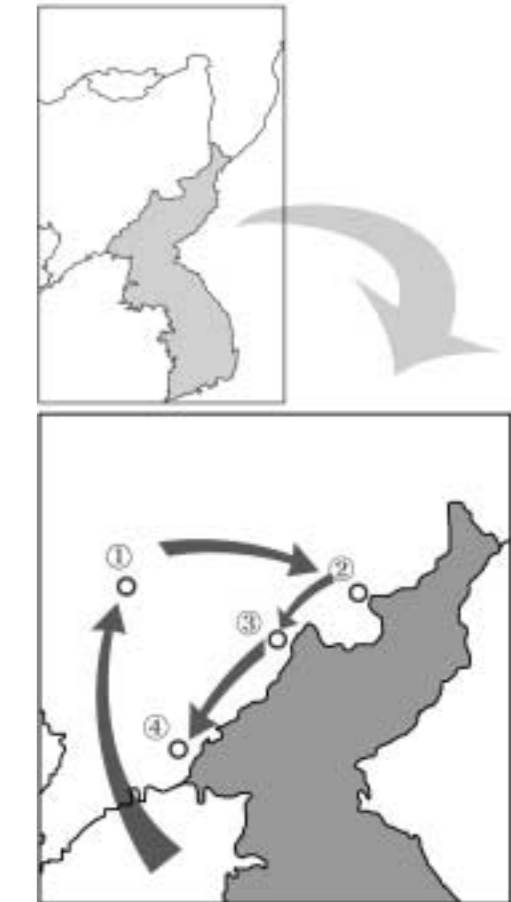
환도산성 등 훌륭한 우리 역사를 바라보며 탐방단은 동북공정문제를 더욱 절실히 느꼈다. 이곳은 아직도 선조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 한데 중국의 동북공정에 흔들리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동북공정은 단순히 고구려 역사를 자국사로 편입시키려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지리적 가치가 높은 만주 지역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더불어 아시아를 중화사상 중심으로 재편성 하려는 전략의 일환이기에 문제가 더 크다. 이번 탐방을 통해 동북공정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절실히 느꼈다.

'동북공정 문제에 대한 분노를 느끼면서도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란 탐방단의 질문에 "첫번째로 끊임없는 관심으로 역사를 바로 알고, 다음으로는 이번 탐방과 같이 직접 와서 보고 느끼며 스스로 역사를 해석해 보는 답사태도가 중요하다"고 윤 교수는 말한다.

탐방을 마무리 하며 류동일(경영4)군은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저마다의 시각을 모아 조금이나마 고구려에 대한 완성된 역사인식을 갖게 된 이번 탐방은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탐방은 앞으로 역사문제를 짚어지고 나아가 할 학생들의 의식 재조명에 견고한 발판이 되어 줄 것이다.

윤혜경기자
zzenobia@dongguk.edu

고구려유적탐방경로



- ① 심양 : 오녀산성, 백암산성
- ② 백두산, 금강대협곡
- ③ 집안 : 광개토태왕비, 광개토태왕릉, 장수왕릉, 국내성 성벽, 환도산성, 오호분오호묘
- ④ 단동 : 입록강, 본계수 동굴

이색서점 탐방기

이색서점, 숨은 보석을 찾아가다

자신만의 색깔, 저렴한 가격으로 독자발길 붙잡아

뚜렷한 개성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돌보이기 마련이다. 대형서점과 온라인 서점이 넘쳐나는 요즘, 독특한 색깔로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이색서점들이 있어 찾아가보았다. 아트북, 만화, 중국서적만 판매하는 이색서점의 매력을 살펴보자.



▲ 포토박스

충무로역을 지나 명동 방면으로 조금 걸다보면 한 편의 화보 같은 책들이 가득한 서점이 보인다.

아트북 전문서점 '포토박스'

사진, 그래픽디자인, 건축, 회화 등 예술 관련 책들로 가득 채운 서점 '포토박스'는 30년 전 사진책 전문서점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포토박스에는 4천여 권 정도의 아트북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사진관련 전문서적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진작가들은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거나 알려지지 않는 사진작가의 책을 직접 보고 살 수 있어 좋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포토박스에 있는 대부분의 책들은 미국, 유럽 등에서 직수입해온다. 또 김주혁 대표가 일 년에 몇 차례씩 직접 외국에 나가 책을 구입해오기도 한다. 정기적으로 포토박스를 찾는 김동은(24)씨는 "서점에 올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에 둘러싸여 고르다 보면 시간은 잘 모른다. 아이가 양손



▲ 대립서적

에 사랑을 가득 진 것 같은 기분"이라 말한다.

충무로에 아트북 전문서점이 있다면 신림역에는 만화 전문서점이 있다. 국내만화, 일본만화, 판타지, 만화잡지 등 '만화' 하나로 매니아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이 자자한 '대립서적'이다.

만화 매니아 천국 '대립서적'

대립서적만의 매력은 5만권 이상의 책뿐 아니라 매장 내에 애니메이션 전시회에서나 볼 법한 캐릭터 전시물이 곳곳에 세워져 있어 작은 애니메이션 전시회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또한 다른 서점과 비교해 20% 저렴한 가격으로 만화책을 구매할 수 있어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도 부담 없이 책을 구입할 수 있다. 대립서적 장승혁 부대표는 "만화를 좋아하는 손님들이 이곳을 약속장소로 정해 모임을 갖거나,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서점을 운영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함과 동시에 중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중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도 많아졌다. 종로에 있는 '중국서점'에 가면 작은 서점 규모에도 불구하고 각종 중국잡지, 중국어학서적, 중국의 베스트셀러 등 다양한 중국원서가 가득하다.

중국의 모든 것 '중국서점'

'중국서점'은 지난 2002년 온라인 서점(http://www.chinabook.co.kr)으로 시작해 지금은 오프라인매장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다. 매달 2~3차례 중국 현지에서 책을 들여오고 있고, 매장에 없는 책은 제목과 출판사를 알면 주문할 수 있다. 가격 또한 현지가격보다 불과 30%정도 높아 잡지의 경우 원하는 책을 몇 권이나 골라도 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서점을 찾는 사람들은 '클릭 몇 번으로 집에서 책을 편히 받아보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고르는 책이 더욱 오래 남는다'고 말한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이색서점의 색다른 분위기를 느끼며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으로 지식과 감성을 살피우는 것은 어떨까.

최미혜 기자
Imisonara1@dongguk.edu

영풍문고 박승환 북마스터에게 듣는 대학생 독서요령

"읽는 즐거움 느껴 보세요"



-북마스터는 어떤 일을 하나.
=책을 고르면서 어려움을 느낄 때 고객들이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도록 네비게이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예전과 비교해 대학생들의 독서 관심분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예전에는 민주화 운동 등의 영향으로 사회를 반영하는 도서에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이 점점 강해지면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의 흐름은 어학연수, 면접 등으로 실용적인 영어능력이 강조되면서 토플, 토익 분야 대신 회화 관련 서적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나 과학 분야의 책들은 대학생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책을 잘 고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좋은 책을 고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좋은 책을 읽어본 사람만이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책이 어떤 책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고전을 읽어봤으면 한다. 고전은 이미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검증된 책이기 때문에 좋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책이든 저마다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장점을 찾아내는 것도 읽는 즐거움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대학생들이 흥미 있는 분야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편중된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부족한 분야를 채우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등교시간이나 공강시간 등 틈날 때마다 책을 펼쳐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또 책 읽는 습관을 들이지 못했다면 흥미 있는 분야의 책을 먼저 보길 권한다. 습관이 되고 책과 가까워진다면 다른 분야의 책에도 눈을 돌려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인터넷으로 책을 사기보다 직접 서점에 가서 책을 보고 고르면 책과 더 가까워 질 수 있다. 인터넷으로 책제목과 목차만을 가지고 책을 판단하기보다 책의 내용을 훑어보며 내가 원하는 책이 맞는지 느껴볼 필요가 있다.

정동훈 기자
gfd1226@dongguk.edu

경제 -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를 아는가?

앙드레 코스톨라니 지음·미래의 창



최근 들어 한국 사회의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은 과거 어느 때보다 폭발적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미 서점에는 수많은 서적들이 난무하고 있다. 각종 주식의 가치 측정 분석 도구에 관한 책부터 변칙적인 통계를 이용한 매매 법에 관한 책들, 주식시장에서 전설로 통하는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의 저서까지 주식에 대한 관심은 이미 우리 사회의 각 층에 있다. 18세부터 약 70 여 년 수많은 일을 겪으며 투자라는 유희를 즐겼던 독일 출신의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권의 서적을 남겼

다. 그 중의 하나인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라는 책은 투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 충분한 가치를 발하고 있다. 저자는 주식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학적, 통계적 분석 자료나 매매 법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는 사회에서 만난 거친 멘토처럼 세련되지 않지만 오랜 경험과 뛰어난 통찰력에서 나온 생생한 시장의 이야기로 투자의 기본 마인드를 제시한다. 이 책은 주식시장의 시세는 일정한 규칙이나 이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오히려 무지한 대중들의 심리적인 면이 주식시장의 시세에 더욱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한다. 또한 시장에는 거짓 정보가 난무하고 그릇된 전망들이 산재해 있어 이런 정보들은 대중의 심리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의 가치가 대단히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불안하

고 명확하지 않으며 급변하는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판단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투자자 스스로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믿으며 순간의 시세변동을 견뎌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려운 일이며 투자의 수익은 그 인내의 대가인 것이다. 투자를 하고 있지 않거나 주식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은 책 속의 내용이 다소 와 닿지 않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장 속에서 방향을 잃었던 사람이라면 저자의 경험과 조언이 굉장한 위와 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 명의 훌륭한 인생의 선배와 대화를 하는 느낌으로 읽어간다면 책 읽는 시간이 즐거울 것이다.

이동진 (사과대 경제4)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금석문(金石文). 역사가에게 있어서 특히 고대를 연구하는 역사가에게 금석문이란 존재는 가뭇의 단비와도 같은 존재다. 사료의 부족은 서양의 고대사나 동양의 고대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고대의 경우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라는 두 사서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금석문은 이러한 사료의 부족을 해결해 줌과 동시에 그 시대 사람들의 실제 역사와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고대로부터의 통신'은 이러한 금석문을 소개하고 그 속에 담긴 내용과 의의를 전달해 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은 비석뿐만 아니라 고분벽화·목간·암각화 등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다양한 매개체를 금석문으로 설정

고대사를 여는 열쇠

역사 - 고대로부터의 통신

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푸른역사

해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광개토태왕릉비부터 중원고구려비, 진흥왕 순수비, 청동기 시대의 암각화, 고구려 고분 벽화 등 다소 생소한 것들까지 이 책은 담아내고 있다. 대체로 책의 구성은 한 가지 금석문을 선정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저자 나름대로의 해석, 그 특징과 의의에 대한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

필자는 이 책을 수업용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수업교재로서 접하게 되었지만 필자는 이 책을 통해 금석문에 매료되고 말았고 더불어 이 책에 빠지고 말았다.

필자는 역사를 배우는 입장에서 특히나 한국고대사를 배우는데 있어서 사료의 부족으로 항상 추측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 또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확연한 차

이를 보일 것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고대로부터의 통신'을 통해 금석문을 접하게 된 것은 두 가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주었다.

필자는 며칠 전 이 책에 소개된 중원 고구려비를 직접 찾아갔다. 비석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듯 했고 글자 하나하나에 고대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금석문은 그런 것이었다. '고대로부터의 통신' 독자들에게 고대사로 들어가는 '열쇠'를 선물해 주는 책이다.

엄기서 (문과대 사학2)



글쓰기센터 상담프로그램 안내 Counsel Program

프로그램	일반상담 -학부생 상담 -대학원생 상담(석사과정)	당일방문상담	이메일상담
상담내용	자세한 질의 및 상담	간단한 조언	간단한 이메일 코멘트
신청방법	1일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당일 방문 신청	1일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 일반상담 프로그램

미리 상담 신청을 하고 예약된 날짜에 글쓰기센터로 찾아와 상담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학부생 상담, 대학원생 상담이 있습니다.

▶ 학부생 상담 :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나 글을 쓴 이후 자기 글의 문제점을 알고 싶을 때 언제든지 글쓰기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교양수업과 관련된 모든 글(발표문, 서평, 기말 보고서 등)이 상담의 대상이 되며, 상담은 글쓰기센터 연구조교들이 담당합니다. 보고서의 계획서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고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학원생 상담 : 글쓰기센터는 대학원생(석사과정)을 위하여 세미나 발표문이나 기말보고서, 학위논문의 개요에 대한 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은 전임연구원이 담당하며, 주로 글을 계획하고 구조를 만드는 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제공합니다.

○ 당일방문상담 프로그램(주 2일 8회 4시간 한정)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글쓰기센터로 바로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보고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구성 단계에서 의문 사항이 있거나 보고서를 쓰는 도중에 의문점이 생겨 상담을 원할 때는, 당일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한 후, 글쓰기센터로 찾아오면 간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메일상담 프로그램

비교적 짧은 글에 대한 간단한 조언을 받고 싶을 때는 이메일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글에 대한 자세한 질의나 조언은 불가능하며, 보고서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질의를 원할 경우, 이메일상담을 받은 후 정식으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현재 글쓰기센터 홈페이지가 준비 중이어서, 상담프로그램은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예약 받고 있습니다. 교양교육원 홈페이지(http://generaledu.dongguk.edu/)에 게시된 상담 시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상담] 동국관(M동) 4층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 2260-3380 FAX : 2260-3385

상담 시간표 / 2007년 2학기(9월)

시간	월		화		수		목		금		비고
	학부	당일/대학원	학부	당일/대학원	학부	당일/대학원	학부	당일/대학원	학부	당일/대학원	
09:00~09:30											
09:30~10:00											
10:00~10:30		홍진영									
10:30~11:00		홍진영		홍진영		박술잎		원치승		홍진영	
11:00~11:30		홍진영		홍진영		박성순(당일)		박술잎		원치승	홍진영
11:30~12:00				홍진영		박성순(당일)		박술잎		원치승	홍진영
12:00~12:30						박성순(당일)					
12:30~13:00		홍진영		박성순(당일)						박성순(당일)	
13:00~13:30		홍진영		홍진영		원치승		박성순(당일)		박술잎	
13:30~14:00				홍진영		원치승		박술잎		박성순(당일)	박술잎
14:00~14:30						원치승		박술잎		박성순(당일)	박술잎
14:30~15:00						박술잎		원치승		홍진영	
15:00~15:30						원치승		박술잎		원치승	홍진영
15:30~16:00						원치승		원치승		박술잎	박술잎
16:00~16:30						원치승		원치승		박술잎	박술잎
16:30~17:00						원치승		박성순(대학원)		원치승	박술잎
17:00~17:30								박성순(대학원)			
17:30~18:00								박성순(대학원)			

○ 글쓰기센터 상담 연구원

- ▷ 박성순 전임연구원 / 대학원생 상담 / 2260-3380 jayion@naver.com
- ▷ 홍진영 연구조교 / 학부생 상담 / 2260-3380 heukchun@naver.com
- ▷ 박술잎 연구조교 / 학부생 상담 / 2260-3380 poch322e@naver.com
- ▷ 원치승 연구조교 / 학부생 상담 / 2260-3380 csweon@yahoo.co.kr

2007년 2학기

보고서 집중상담프로그램 지원 안내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자신이 없거나 보고서 작성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지도해 주는 보고서 집중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에 제출할 보고서를 대상으로 보고서의 준비 단계에서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글쓰기센터 연구조교들이 3회에 걸쳐 일대일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

- 지원 대상 : 2007년 2학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졸업논문 및 전공과목과 조별과제물은 제외)

- 선발 인원 : 0명(소정의 문화상품권 지급)

■ 신청 및 결과 발표

- 신청 기간 : 2007년 9월 11일~2007년 9월 21일

- 신청 방법 :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heukchun@naver.com)로 제출. 신청서는 교양교육원 홈페이지(http://generaledu.dongguk.edu)에서 다운받거나 글쓰기센터를 방문하시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 발표 : 2007년 9월 28일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전화(2260-3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상담] 동국관(M동) 4층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 2260-3380 FAX : 2260-3385

파워인터뷰

연극학과 이윤택 교수

"이 부분에서는 독백이 들어가야지" "좋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어가!"

연습장에 올리는 찌렁찌렁한 목소리보다도 배우 하나하나를 꿰뚫어 보는듯한 날카로운 눈빛에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 '문화 게릴라'가 동아에 등장했다.

연출에서부터 문학과 영화까지 전 방위의 문화를 사수하는 약간은 거칠지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비정규군, 이윤택 교수(연극학)와 만났다.



“學歷이 아니라 學力이 필요합니다”

<수확한 이력>

<학문상의 실력>

- 첫 강단에 선 소감과 앞으로의 강의계획은.

= 오늘 대학원 제작실습 수업을 하고 왔다. 대학원생들의 공부가 거의 이론적인 것이라 실습을 두려워 할 줄 알았는데 수업에 임하는 열정이 뛰어나 다행이었다. 이 수업과 함께 학부 4학년 수업도 맡았는데 둘 다 제작 실습, 공연을 전제로 한 것이라 일반수업과는 차이가 있다. 나는 원론적이고 개념을 잡아주는 동시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제작 능력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 요즘 언론에서 학벌 없이도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이교수가 생각하는 대학 강단에서 학력이란.

= 진정한 학력이란 대학의 중심이며 대학을 이끄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력과 학벌은 다르다. 학력은 정신적이고 내용적인 것이지만 학벌은 패거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다. 학력은 과학, 인문학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예술 부분, 미학에 있어서는 학문의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창작자들의 세계가 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평생을 쌓아온 예술창작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만큼 학벌이 중요치 않다. 그러한 사람들의 학력은 측정할 수 없는 것이다.

- 전문대학에서 교육학 공부를 했는데 대학에 진학해 정식교수가 되고자 한 적은 없었다.

= 전혀 없었다. 우연하게 대학 교육을 받지 않고 세상에 뛰어들게 됐지만 스스로 제도권 속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비주류라는 것을 자부하고 싶었다. 사실 강의를 하게 된 것도 대학에서 내 현장능력과 경험을 높이 사 수업해달라고 한 것이었다. 내 자신은 초빙교수로도 만족했지만 가르치다보니 연구지원도 되지 않는 상황에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어 화가 났다. 그래서 5월에 실기교수를 맡아 달라고 연락해 왔을 때

학벌이 없지만 초빙교수로는 가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새 총장님이 학교를 아주 뒤집고 계시더라. 학교를 개혁시키는 과정에서 학벌 없이도 교수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내린 것 같다. 그래서 임용 된 것 아닌가 싶다.

그리고 신정아 사건이 발생하며 일어난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갑자기 아주 정직한 사람이 돼 있더라. 나는 그렇게 과대평가될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학생들을 잘 못 가르칠 사람도 아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사실 언론에서 이번 임용과정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정직한 사람 만드는 것이 기분 좋지 않다.

- 부산일보에서의 기자경력이 있는데.

= 그때 당시에도 한국일보와 KBS 빼고는 모두 대졸자만 뽑았다. KBS에 떨어지고 보니 부산일보에 난 기자선발 공고에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학력자'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이 학력이라는 단어의 '력'자가 '力' 힘력자였다. 그래서 아, 나도 할수 있겠구나 싶어서 지원을 했다. 그런데 이게 오타였던 거지. 사장님과 직원들 모여 회의하고 난리였는데, 결국 뻘썩서 일하게 됐다.

- 수년간 기자생활을 하다가 다시 연극판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는

=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 밤에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학생들이 화염병 던지고 아침에는 기사검열을 받으러 가야 했다. 잘못하면 구둣발로 차이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글쟁이의 처지에 회개가 생겼다. 그래서 '차라리 광대가 되자'라는 생각으로 고향을 따라다니게 됐고 그 고향 무대에 올리고 연회단 거리패도 만들었다.

- 기형도 시인이 붙여 준 '문화게릴라'라는 별칭이 이제는 대표적인 수식어가 됐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처음엔 문화게릴라라는 말이 불쾌했다. 정규군이 아니라는 거지. 학벌도 없는 지방 촌놈이 글을 쓰고 극을 올리니 제도권인 서술권의 인물들이 이윤택이라는 사람을 별종, 다른사람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이 별명이 자랑스럽다. 제도권에 결탁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좀 더 정직하고 건강하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번에 교수가 돼버려서 문화게릴라라는 말이 좀 문제가 있을 지도 모르겠네. (웃음)

- 공연 기획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 '관객'이다. '이렇게 하면 관객이 재미있어 하고 놀랄거야. 반드시 반응할 거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외국 공연을 우리나라에서 할 땐 우리 정서와 맞게 공연해야 한다. 요즘은 외국인도 한국말 할 줄 아는 세상인데 외국공연이라도 한국에서 공연하면 한국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공연하는 '공길전'도 뮤지컬 '이'를 다시 재구성한 것인데 아주 고급스러운 마당극처럼 만들 것이다. 아, 항상 생각했던 것인데 뮤지컬은 너무 비싸다. 내가 꼭 극단에 말해 동국대 학생들은 학생증을 제시하면 1만원에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비싸서야 학생들이 공연을 어떻게 보겠는가.

-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동국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위치와 캠퍼스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만해선생의 당당함이 존재하고 있다.

역사적 전통도 캠퍼스도 정말 잘린 곳인 만큼 동국대 학생으로서 자존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동대인'이라는 말에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① 1972년 이윤택 교수가 제작, 주연, 연출한 '출발'
② 대학원생과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③ 예술의 전당 연습실에서 진행된 뮤지컬 '공길전'을 지도하는 모습.

이윤택 작품 들여다 보기 - '오구-죽음의 형식'

주류의 세계에서 비주류의 보물창고 열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불교 초기 경전 '숫타니파타'에 나오는 구절이다. 흔들림 없이 곳곳하게 깨달음의 길을 가라는 이 문구는 '문화 게릴라', '아웃사이드'로 불리는 이윤택(연극학)교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문구가 아닐까 싶다.

'어려서부터 가정에 머무르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자기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 뿐이라 여겼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는 철학을 가지고 자라난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때부터 시를 쓰며 글로 세상을 표현하는 즐거움을 느꼈고 연극을 하다 많은 빛을 지고도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의 길을 자신 있게 걸어 나가는 그에게 가장 기억에 남고 소중한 작품은 바로 '오구 - 죽음의 형식'을 꼽는다.

오구는 산오구릇의 거리극적 특성을 극대화 시키며 뒤틀린 현실을 자연스럽게 삼입한 이색적 작품을 창출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이 연극은 많은 논란이 있었다. 연극계를 지키고 있던 주류에서의 '굿은 연극이 될 수 없다'는 주장과 '굿은 연극이 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결국 극은 무대에 올려졌고 결과는 대중적으로 아주 성공했다. 이는 비주류지만 주류의 세계에서 성공한 모습을 또한 한 번 강렬하게 보여주는 계기였다.

'오구 - 죽음의 형식'은 저승 갈 채비를 서두르는 노모에게 아들이 망설임 끝에 굿을 베풀면서 시작된다. 더 할 수 없이 흥겨운 굿판에 어울리며 흡족한 표정의 노모는 '나, 갈란다'는 말을 남기고 거짓말처럼 쓰러져 임종한다. 굿판은 돌연 초상집으로 바뀌고, 상주, 문상객에 저승사자까지 등장한 빈소에서 장례가 윤택하게, 희극적으로 진행된다.

89년 서울연극제에 초연 이후 몇 년간 마당극 스타일의 열린 무대 형식으로 진행되다가 1997년 이후 진행된 강부자의 '오구'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이는 1990년 동경국제 연극제, 1991년 독일 에센 세계연극제, 1998년 베를린 문화의집 초청공연에 참가하기도 했다. 또한 2000년에는 영화 시나리오로 각색하여 2002년 영화로 개봉하기도 했다.

평론가 김방욱(연극학) 교수는 "이윤택씨가 우리 조상의 보물창고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윤택 교수는 경박한 대중극으로 치부하는 시각에 대해 "'오구'를 가장 한국적인 서민극 혹은 대중극이라고 생각한다"며 "오구는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대중적이면서 가장 예술적인 작품"이라고 말했다. 주류연극인도 성취하지 못했던 전통의 새로운 발견을 비주류 문화게릴라가 처음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그는 어쩌면 '문화 역설'인지도 모른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 '오구'의 영화포스터(왼쪽)와 연극 '오구'의 한 장면(오른쪽).



이 시대 젊은이들의 삶과 사랑을 말한다 『달콤한 나의 도시』작가 정이현 강연회

중앙도서관에서는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 저자의 사상과 텍스트에 담긴 의미에 대해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혀 교양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독서의 식을 고취하고 책읽기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강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 1. 행사명 : 제3회 <저자와의 대화>
- 2. 일 시 : 2007. 9. 20(목) 오후2:00-4:00
- 3. 장 소 : 중앙도서관 A/V실(2층)
- 3. 강연자 : <달콤한 나의 도시>, <오늘의 거짓말>의 저자 정이현
- 4. 내 용 : 강연 및 사진회
- 5. 인 원 : 80명
- 6. 참가신청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결원시에만 현장접수 합니다.
- 7. 주 최 : 중앙도서관
- 8. 후 원 : 문화과지성사
- 9. 기 타
* <작가에게 물고 싶은 한마디>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질문이 채택된 학생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또한 정시에 참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해 책과 상품권을 나눠 드립니다.
* 이메일 주소는 choiw@dongguk.edu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8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 앙 도 서 관

졸업요건 영어PASS제 모의토익(9월22일) 시행

영어PASS제는 졸업요건으로서, 해당 학생들은 대학/학과의 지정된 영어 점수를 졸업 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국제화추진단 외국어교육센터에서는 정규 시험(TOEIC, TOEFL, TEPS)이외의 패스 취득기회 확대를 위해서 PASS제 모의 토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1. 접수 : 9. 17 (월) ~ 9. 19(수) 24:00까지 (인터넷접수)
- 2. 입금 : 9. 17 (월) ~ 9. 19(수) 24:00까지 (계좌이체)
- 3. 접수증 출력기간 : 9. 21(금) ~ 9. 22(토)
- 4. 취소 및 응시료 환불할 수 없습니다.
- 5. 방법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재학생서비스- 외국어PASS제- 영어패스시험 신청- 응시료 입금 - 접수증 출력
- 6. 시험 : 2007. 9. 22(토) 10:00~12:30 해화관 2층 강의실
- 7. 대상 : 영어PASS제 미취득자
- 8. 응시료 : 5,000원
- 9. 입금마감일 : 2007. 9. 19 (수) 24:00까지 (미입금시 취소)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07-481766 (예금주: 동국대학교)
- 10. 주의사항
1. 해당마감일까지 반드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시 본인인름 표기: 예, 홍길동 2025123)
2. 부정행위 적발시 정계조치 됨.
- 11.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접수증, 연필(샤프)
- 12. 문의 : 국제화추진단 외국어교육센터 (해화관 1층, 2260-3468, 3470)
- 13. 시험 주의사항 :
1. 9시 30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10:00 이후는 절대 입실 불가.
2. 신분증,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실할 수 없습니다.
3.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 14. 2학기 모의토익 시험일정 안내
9월 22일(토) / 10월 27일(토) / 11월 24일(토) / 12월 22일(토)

국제화추진단 외국어교육센터

2007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공연예술학부 이계원극심

시집가든날

플라자 스위트

4 PLAYS

남자충동

2007. 9. 1 ~ 9. 18 늦은 5시 / 8시 동국대학교 예술극장 주관 : 동국대학교 공연예술학부 후원 : 동국대학교 연극영상학부 동문회

예비 동국108리더스의 해외봉사활동 체험기

어쨌든(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사진협조 = 김병희(정신대 멀티미디어공과)

캄보디아 해외봉사 한 달 전부터 29명의 예비 108 리더스 학생들은 5개의 팀으로 나누어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했다.

8월 22일, 처음 한국을 떠나는 나는 비행기의 기내식도, 검색대도, 다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6시간가량의 비행을 마치고 캄보디아 공항에 내렸을 때 짐을 챙기고, 봉사단 인원파악에 사실은 더위도 못 느낄 정도였다.

천사같은 아이들을 만나다

하루를 게스트 하우스에서 묵고 지구촌 공생회에서 설립한 간달주의 꼬랑야오 유치원으로 이동하였다. 캄보디아를 떠나기 며칠 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인지 유치원에서 일사병을 앓게 되었다. 정신이 들어보니 걱정하는 봉사단 친구들의 모습도 보이고 내가 누워 있는 방 창가로 열쫂판 뺨뺨히 내밀고 걱

정스러운 표정의 캄보디아 아이들도 보였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눈이 마주치면 웃어주고 햇볕이 방안으로 강하게 내리쬐면 창문을 닫아주기도 하는 아이들이 정말 고마웠다. 아이들은 내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지켜봐주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이제 전사와 같은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다.

처음 며칠은 씻는 곳도, 먹는 물도, 화장실도 낯설지만 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것이 편안하게 다가왔다.

동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점심급식을 했다. 부족한 솜씨지만 유치원 아주머니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카레를 정성들어 끓였다. 더운 불 앞에서 큰 솥을 짓고 있노라니 땀이 비 오듯 흘렀다. 11시가 채 되기도 전에 마을 아이들이 저마다 밥그릇을 들고 유치원 마당에 줄을 서기 시작했다. 밥과 카레를 봉사자들이 퍼주고 아이들은 밥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다. 마음속이 따뜻해지면서 처음으로 그런 감정을 느꼈다.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팀별로 완벽히 준비해 갔으나 근처 초등학교 페인트칠이 급선무

라 교육프로그램을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방법이 끝나고 학교에 와서 기뻐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모든 게 보상 되었다. 유치원에서의 짧은 일정이 끝났을 땐 정말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새벽 어스름도 아직 걸리기 전에 동네아이들은 배웅하기 위해 나와 주었고, 동갑내기 현지 유치원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눌 때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친구가 되는 데에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소중한 가르침을 알게 해준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된 10일

해외봉사를 가기 전에는 모든 것이 막연하기만 했다. 단순히 우리보다 후진국에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순전히 오만한 생각이었다. 토의 점수에, 학점에, 앞만 보고 달려온 나에게 그들은 여유와 인정과 사랑을 주었다. 나는 이러한 경험을 갈이한 봉사단, 동국대학교, 캄보디아 어린이에게 감사한다. 내 인생의 또 다른 10일을 살게 해주었고 또한 그 10일이 나의 인생에 더 많은 날들을 바꾸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김다운(사과대 신방3)

동약은 시골벽적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민화, 민병, 4대 분량의 글 등을 게재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guk.edu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학력’ 평가기준 중 일부여야

최근 쏟아져 나온 학력위조에 대한 기사들은, 예술 분야에서 연예인들에 이르기까지 마녀 사냥을 하듯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학력이 단순히 사람의 능력을 입증하는 하나의 수단이나,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학력을 획득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식, 기술 등의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획득된 학력 자체를 중시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관행과 의식이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학력위조’는 이러한 맥락에서 터져 나온 것이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대학교수의 임용, 회사의 인재선출 등에서 객관적으로 사람을 선출할 수 있는 기준은 ‘학력’일 수밖에 없다. 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선발체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 획득이 학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잘못된 방법이기도 하다. 때문에 장기적 행과 의식이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학력위조’는 이러한 맥락에서 터져 나온 것이라고 본다.

구하는 목적으로 인재를 선출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 다양한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선발체제가 갖추어지기 이전까지 ‘학력’이라는 기준은 가장 합리적인 대안임에 틀림없다. 학력을 획득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식과 기술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며,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된 개인의 노력과 시간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력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 그것에서 승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서 사회적·양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며,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지영(사범대 지교3)

교수임용, 학력이나 능력이나

이번학기부터 ‘열린공터’를 폐지하고 논란이 되는 사건에 대해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는 ‘동약은 시골벽적’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교수임용에 신선한 충격을 준 이윤택 교수와 관련해서 ‘교수를 임용하는 데 학력과 능력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학력으로 뭉친 ‘패거리 문화’ 깨지나

최근 동국대가 두 명의 교수 임용으로 인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 명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유명인사(?)가 된 신정아 전 교수이고, 다른 한 명은 2학기부터 임용된 이윤택 서울예술단감독이다. 그동안 이윤택 감독은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맹활약하며, ‘문화계팔라’, ‘전방위활동가’ 등으로 불리던 인물이다. 그의 화려한 경력을 볼 때, 지금의 교수 임용은 다소 늦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대학사회는 자기들만의 패거리 의식을 가지고 존재해 왔으며, 학벌이라는 신분을 사회적으로 요구하게 만드는 구조의 핵심에 있었던 것이다. 이윤택 감독이 아직 한 학기도 제대

로 수업하지 않았고, 수업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도 없는 상태에서, 이번 임용이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며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교수를 평가하는 데는 그의 실력과 경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는 효율적인 교수법의 유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임용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학벌이 하나의 경력이 아니라, 개인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잣대처럼 활용되었던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에 비추어 볼 때 분명 파격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벌은 한국사회를 계급화 하는 불평등의 다른 이름이었다. 좋은 학벌을 대물림하기 위해 주저지

역은 학군으로 새롭게 편제되었고, 부등산 가격은 명문학원의 위치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다.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좋은 학벌을 갖게 해주는 것이 보다 현명한 부모의 상속이라는 인식이 한국사회에서는 경합적이고,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동국대의 임용을 통해 한국사회의 병폐가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란다.

다만 공교로운 것은 한국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신정아 씨 사건 이후 이윤택 감독이 실력과 경력을 인정받아 대학에 임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윤택 감독의 임용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동국대학교의 제스처가 아니라, 학벌만을 요구조건으로 삼던 경직된 대학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진실한 몸짓이 되기를 바란다.

전영주(방송통신대 법학과 튜터)

지나오 동대신문을 읽고

기성 언론과 다른 신선한 접근 필요

평소 학교신문을 읽지 않다가 우연한 기회에 신문을 접하게 되었다. 학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인만큼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엔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알게 되었다.

특히, 학교 이곳저곳에 공사가 한창인데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되어 ‘학교에서 하는일이 그렇지 뭐...’ 라는 괜한 오해를 하지 않게 되었다. 더불어 있는지도 몰랐던 총동문회에 대한 소식도 접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 퇴임하시는 교수님들의 인터뷰 기사는 한번도 강의를 들은 적 없는 교수님이지만 단지 우리학교의 교수님이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으로나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렸다.

하지만 이번호에 특집처럼 다루어졌던 ‘신정아 사건’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신정아 사건’을 특집기사에 보리수, 사

설, 메아리 등에 기고했는데 몇 장 되지 않는 신문지면을 절반에 가깝게 할애하면서까지 이 사건을 지겹게도 언급했어야 했나 생각한다. 지겹게 한 진자 원인은 많은 지면수가 아니라 ‘신정아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성 언론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데 있다.

지금의 언론보도들을 보면 교수는 교육자가 아니다. 좋은 학력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명망이 있는 벼슬이고 또 그 벼슬로 다른 감투를 쓸 수 있다. 우리학교의 행정이 엉망이어서 신지가 교수로 채택된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하나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가르침이 성인군자에 버금간다고 해도 신지의 죄는 회색시킬 수 없지만 그녀가 교육자의 신분을 가지

고 있었다면 교육자로서의 신체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단지 특종을 잡고 더러운 사회의 일면을 고발해 내고자 하는 기자가 아닌,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스승으로서의 신정아는 어땠는가를 심층적으로 다뤄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반면 헤이그 특사단 탐방기는 아주 흥미로웠다. 이제는 더 이상 생생하지 않은 고등학교 국사시간을 떠올려보기도 하고, 대학입학 이후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하지만 사진 자료가 풍부하지 못하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도에 특사단의 여정을 화살표로 표시해주거나 지도에 점을 찍거나 번호로라도 표시했다면 내용을 이해하기 훨씬 쉬웠을 텐데 평소엔 잘 접하지 않는 지역이라 여정을 머릿속으로 그리기가 버거웠다. 2부는 더 일처리라 믿는다.

김두순(사과대 정외3)



독자 사진첩

빈자리 ...

천만명의 도시 서울 한복판, 희색 담백락 아래 빈 의자는 쓸쓸하기만 하다.

황인엽(사과대 신방2)

달하나 천강에

언제까지 혼자일텐가



강석원
일어일본학과 교수

최근 대학 캠퍼스에 혼자 공부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혼자 수강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거리의 카페나 레스토랑 등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젊은 직장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 것이다. 이들을 일컬어 ‘나홀로 족’ 또는 ‘싱글족’이라고 부른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낸 신조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필자가 일찍이 일본 유학 시절에 보았던 현상이기도 하다. 슈퍼마켓에서 큰 과일 특히 수박은 반 쪽, 또는 사분의 일 쪽, 또는 그 보다도 작게 잘라 판매하고 있었던 것을 본 일이 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인의 상술로 치부하였으나, 그 배경에

나홀로 족이 있었던 것이다. 또 여행사마다 젊은 직장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을 앞 다퉈서 판매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경제적 여유를 얻은 젊은 직장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고 자기만의 삶을 즐기려는 욕구가 있었는데 그에 부응한 상품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나홀로 족은 시장 경제마저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오늘 우리 사회에도 널리 퍼지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남에게 간섭 받기 싫어하는 젊은이 특유의 기질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럿이 함께 생활하면 자신의 자유가 제약 받기 쉽고, 또 상호 간의 의견 조율도 번거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급변하는 사회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고민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럿이 함께 행동하면 취업 준비나 자신만의 박은 반 쪽, 또는 사분의 일 쪽, 또는 그 보다도 작게 잘라 판매하고 있었던 것을 본 일이 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인의 상술로 치부하였으나, 그 배경에

는 사회와 함께 다양화하는 개개인의 기호나 취미, 팽배해지는 개인주의와 이를 돕는 MP3나 노트북 등 디지털 가전기기의 보급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도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홀로’ 현상의 양면성을 본다. 그러나 필자는 나홀로 족의 문제점보다는 오히려 ‘패거리 족’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보다 심각하다고 본다. 사회 현상은 차치하고 대학의 본령은 학문 연구에 있으며, 그것은 패거리가 아닌 고독한 등대의 역할과도 같은 목적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홀로 족의 증가 현상은 향후 더욱 현저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언론이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의하면, 2000년 226만 가구였던 1인 가구가 2005년에는 267만 가구였고, 2020년에는 389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젊어 한 때 나홀로 족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가능한 일은 아니다. 외부와 단절된 폐쇄된 공간에 틀어박혀 자기만의 생활을 영위하는 일본의 ‘히키코모리’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나홀로’가 지나쳐 ‘히키코모리’로 발전해서는 안될 것이다. 남과 더불어 살아 가는 것이 일련 불행하고 비효율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먼 앞날을 위해 손해보는 생활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원 향
월 (9/10)	부대찌개 (2000) 쇠고기볶음밥 (2000) 합박스테이크 (2500)	갈비경단 (1800) 쇠고기국밥 (2500) 닭갈비덮밥 (2200)	철판낙지볶음 (2900) 양송이볶음밥 (2500) 떡볶이감자탕 (2900)
화 (9/11)	감자탕 (2000) 해물덮밥 (2000) 수제돈가스 (3000)	돈육매추리알조림 (1800) 알탕 (2500) 칠리소스볶음밥 (2000)	평양식비빔밥 (2900) 두부김치덮밥 (2500) 닭볶음탕 (3500)
수 (9/12)	갈비탕 (2500) 김치볶음밥 (2000) 새우가스 (2500)	갈치구이 (2000) 닭불고기술밥 (2500) 카레라이스 (2000)	순살돈가스정식 (2900) 순대야채볶음 (2500) 치즈부대찌개 (2900)
목 (9/13)	섭산전구이백반 (2000) 하이라이스 (2000) 치즈돈가스 (2500)	오징어볶음 (1800) 된장찌개 (2500) 제육덮밥 (2200)	새우볶음밥&매콤탕수 (2900) 감자수제비 (2500) 돈사태짐 (3500)
금 (9/14)	참치김치찌개 (2000) 불고기소스볶음밥 (2000) 치킨가스 (2500)	복어국백반 (1800) 설렁탕 (2500) 산채비빔밥 (2000)	떡볶이&추장불고기 (2900) 닭곰탕 (2500) 만두전골 (2900)

시청률의 새로운 도구 '리얼리티'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젊은 여성의 뒤로 서서히 접근한다. 그리고 은밀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다. 카메라는 '진실'을 담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다. 곧 철도 공안수사대가 등장해 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 과정이 긴박하게 스크린을 탄다. (tvN '리얼스토리 모(備)'의 8월 12일 방영분) 하지만 실제 상황이었다면 알려졌던 이 방영분은 모두 재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방송이 나간 후 일부 네티즌들이 재연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한 언론사의 취재 결과 촬영에 협조했던 철도공안수사대 측으로부터 전부 재연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이 들끓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페이크 다큐'를 표방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tvN의 '현장리포 스캔들'에는 의뢰인이 피의인의 불륜현장을 습격하고, 아기를 점지해 준다는 무속인에게 속아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등장한다. 더구나 출연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까지 변조돼 리얼리티를 더한다. 이 프로그램이 연출된 장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공지는 불과 몇 초에 불과하다. 이 몇 초간의 공지로 거짓말 방송은 면했지만, 눈치 빠른 시청자가 아니면



논단
김 동 찬
민언련 방송모니터위원회 회원

재연임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현재 케이블 채널은 이 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들로 넘쳐나고 있다. 리얼리티 게임쇼, 서바이벌 리얼리티쇼, 짝짓기 리얼리티쇼, 리얼리티 토크쇼, 다큐멘터리 리얼리티쇼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 프로그램들의 의도는 분명하다. 가장 은밀한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폭로해 지켜보는 관중중적인 쾌락을 제공함으로써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보다 자극적인 장면을 만들기 위한 경쟁은 거짓말과 조작의 유혹에 빠져들게 한다.

이에 대해 케이블 TV제작자들은 낮은 제작비를 탓한다. 이런 열악한 제작여건에서 엄청난 제작비를 쏟아 부은 외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제

비비 탓만은 아니다. 수십개의 채널이 경쟁하는 다매체 경쟁 속에서 한국의 케이블 제작자들은 '노골적인 선정성'이라는 가장 쉬운 면서도 저질스런 방식을 돌파구로 선택했다.

한답에도 십수개씩 새롭게 등장하는 케이블 프로그램들을 보라. 점점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소재를 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일상적 소재를 통해 훈훈한 감동과 진실된 웃음을 선사한다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방송계에는 '자유시장에서 일반상품은 경쟁할수록 품질이 향상되지만, 방송 프로그램은 경쟁할수록 질이 떨어진다'는 속설이 있다. 오늘의 케이블 TV는 이 속설이 입증되는 생생한 현장이다. 그 피

해는 온전히 시청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더 우려되는 대목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공중파 방송에서도 날로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케이블과 공중파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차이는 '솔루션'에 있다. 현상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방송사가 문제의 해결사로 자처하고 나선다. '엄마를 때리는 아들', '아이를 감시하는 엄마', '자해하는 19세 소녀' 등 엽기적이고 일탈적인 소재들로 시작해 최근 들어서는 부부관계, 자녀교육, 알콜중독, 가정폭력 등 다루는 소재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극적이고 엽기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데 방송시간의 많은 양을 할애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프로그램 말미에 해피엔딩을 위하여 잠시 등장할 뿐이다.

'해결사'로 나서는 프로그램의 수가 늘어날수록 문제에 대한 깊은 고찰은 사라지고 극적인 사례를 시청률의 도구로 삼는 경우만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리얼리티'는 공중파에서도 진정성을 위한 수단이기 보다 시청률 상승의 도구인 것이다. 좋은 프로그램을 시청할 시청자의 권리는 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사설

학생위한 학습환경 지켜줘야

2학기 개강을 맞아 학교가 어수선하다. 신청야 사건으로 방학 내내 시끄럽더니 이제는 건물 공사도 소란스럽다. 지난학기 학술문화관 증축을 시작으로 동국관, 민해관, 교수회관, 학림관 등 학내 곳곳에서 대대적인 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중에서도 학림관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 개강을 이틀 미뤘다. 그 동안 학림관에 배정된 수업은 전부 휴강됐고 이에 따라 수강정정기간도 닷새나 연기됐다. 학교 측은 올여름에 유독 비가 온 날이 많아 공사가 지연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치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개강을 하루 앞두고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이다. 더불어 학사 일정이 미뤄진 것에 대해 전체적인 일정을 연기하지는 않고 교수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 학교 측에서 앞으로의 수업진행과 관련해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아 미뤄진 일정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흐지부지 되지는 않을까 염려된다.

또한 건물마다 청소와 환기가 되지 않았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생긴 페인트 등 화학 가스 냄새가 건물 안에서 진동하고 있다.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건축자재들은 또 어떤가. 교수회관 연구실을 사용하는 한 교수는 "개강 첫째 주는 청소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외부공사도 마무리가 되려면 빨라도 9월 말쯤은 돼야 한다고 한다. 앞으로 수업을 할 수는 있어도 소음이나 오염된 공기 등으로 부터 교육환경이 정상화 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강부터 학교가 다른 학기 초와 달리 혼란스럽다. 수강정정기간이 미뤄져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늦어지고 공사로 인한 소음도 문제다. 학교가 변화해가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기본적인 학습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어렵다. 대학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최우선시 돼야 한다.

보리소

명품에 대한 환상

중국선종에서 금조옥조로 여기는 '육조단경'은 개장자 혜능선사의 득법과 전법과정들 매우 드라마틱하게 보여준다. 무식한 나무꾼 출신인 혜능(慧能)은 홍인대사 문하로 들어가 수행한 끝에 수제자 신수(神秀)와의 벽상시(壁上詩) 대결에서 판승을 거둔다. 그는 홍인대사로부터 전법의 표지로 의발을 전해 받고 당당하게 선종의 제6대 조사가 된다. 하지만 속된 무리들이 질투하자 그는 의발을 가지고 피신길에 오른다. 사람들은 혜능이 도망간 것을 알고 의발(衣鉢)을 빼앗기 위해 추격에 나선다. 대유령이라는 고개에 이르렀을 때 혜능은 추격자 혜명과 조우한다. 그는 의발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전법의 믿음을 표시하는 것, 힘으로 다룰 일이 아니다.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

그러나 발우가 꿈쩍하지 않자 추격자 혜명은 머리를 숙이고 가르침을 청한다. 이 때 혜능은 저 유명한 명언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不思善 不思惡)는 가르침을 내린다. 좋고 나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진리의 본성을 탐구하는 데 충실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혜능을 쫓던 혜명의 경우처럼 외재적인 것에만 모든 가치를 부여하려고 한다. 내면적 마음의 변화를 통한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하기 보다는 겉모습에만 집착한다. 실력보다는 학벌, 능력보다는 외모, 내용보다는 상표에 과도한 의미를 둔다. 이런 행태는 요즘 사람들이 사족을 못 쓸 정도로 좋아하는 이른바 명품을 통해 극명하게 표출된다.

사람들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어아 품이 난다고 생각한다. 마치 의발을 손에 넣어야 도를 깨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추격자 혜명과 같은 발상이다. 정말 그런가? '명품'만 가치가 있고, '김표'는 무가치한 것인가? 비싼 것이 좋다고 한들 신발을 머리에 이고 다닐 수는 없다. 가방은 가방이고 신발은 신발일 뿐이다.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위원

메아리

교취호탈(巧取豪奪)

▲교취호탈이라는 말이 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남의 귀중한 물건을 가로챘을 때 쓰인다. 복숭아 서가이자 화가로 유명한 미불이 있었다. 미불은 서를 왕희지에게 배웠으며 산수화를 잘했다.

그에게는 미우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만큼이나 서화에 뛰어나 아버지 지에 비해 소미라 불렸다. 그는 옛 선배 화가들의 작품을 좋아하여 다투는 대로 모았다.

어느 날 그가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왕희지의 진품 서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내심 쾌재를 불렀다. 남의 작품을 그대로 묘사할 수 있는 재주가 있어서 잠깐 동안이면 진품과 모사품을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그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우인은 예술 작품 수집을 위해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다.

▲최근 들어 대학마다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기위해 교원확보에 힘을 쓰고

있다. 교원의 수를 늘리기 위해 각 대학에서는 다른 대학의 교수를 영입하기 시작했다. 학교는 교수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과 교수는 소위 말하는 상위권대학으로의 이직을 원하는 점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로스쿨에 한 발짝 다가선 대학일수록 교수를 영입하는 데 우월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교수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학교를 옮기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학생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학기 중에 학교를 옮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법을 전공 하는 교수들은 원칙과 규범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할 법대 교수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 시대의 법과 규범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는 불행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각 대학에서 서로 교수를 스카우트 하려는 소모적인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다. 대학들이 이러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교수를 데려가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 틈을 노리는 교수들보다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윤재 편집장
yijoonjae@dongguk.edu

동국만평 이주현 nitake@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편집인 겸주간 윤재웅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편집장 이운재	구독문의 :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우리학교 논술 길라잡이

1. 논술 준비 이렇게 한다 -- 독서

독서 통한 배경지식 배양과 요약 훈련

글 쓰는 순서

1. 독서
2. 토론
3. NIE
4. 연습
5. 평가
6. 나만의 생각
7. 유의사항

1. 독서가 가장 중요

사람의 쓰기능력은 인지 영역의 독



립적 분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통합적 영역에 속한다. 논술은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의 최종 결합 형태를 지향한다. 오랜 전통을 가진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미국대학 입시의 에세이 등은 학생의 학업이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판단에 힘입고 있다. 이들 글쓰기의 특징은 한 사람의 인격과 교양을 구축하고 있는 통합적 언어 능력의 검증이다.

이런 통합적 언어 능력을 구축하는 근간 요소는 읽기, 즉 독서능력이다. 읽기는 모든 종류의 쓰기의 전제조건이다. 좋은 글은 반드시 짙고 풍성한 배경지식을 가진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쌀독에 풀집 좋은 쌀이 가득 있어야 걱정 없이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다. 바가지로 황아리 바닥을 긁어야 할 정도로 쌀이 부족하면 공깃밥 면하기 어렵다. 빈약한 어휘들은 몇 문장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갈팡질팡 헤매게 된다. 오합지졸보다 훈련된 정예군이

전장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요컨대 좋은 글은 수많은 어휘들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그것들이 결합하는 효율적인 방식과 효과를 잘 아는 데에서 시작한다.

2. 좋은 문장 꾸준히 읽어야

책이나 문장은 꾸준히 읽어야 한다. 하지만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두터운 서적은 이제 피하는 게 좋다. 시간도 많지 않을뿐더러 비효율적이다. 매일 같이 무언가를 꾸준히 읽는 것이 좋은 전법이다. 자기 수준에 맞게 30분 혹은 1시간 정도씩 읽기에 투자할 수 있는 습관은 권유할 만하다. 수능 끝내고 내신 성적이 다 정리되고 나면, 그때부터 몰아쳐서 해야 하는 생각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30분의 시간도 부담이 되는 학생은 10분이라도 좋다. 신문 칼럼을 읽는 것도 방법이다. 적어도 논술 준비에 있어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은 번갯불에 콩 튀겨 먹는다는 말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

읽을 때는 좋은 문장을 골라서 읽어야 한다. 능숙한 독자는 문장의 좋고 나쁨을 금세 판단한다. 자기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문장 모음집 등을 추천받아 읽으면 된다. 고전이나 명저 혹은 필독서라고 해서 책 전권을 다 읽을 필요는 없다. 전체 내용에 대한 정리 자료는 인터넷 등 도처에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골라서 읽고 확실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책 한 권 전체를 통독하고도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하지 못하면, 이런 학생은 앞의 경우보다 효율성이 많이 뒤쳐진다고 보면 된다. 어차피 논술준비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가가 관건이다. 1시간을 읽어도 집중해서 읽고 요점을 빨리 파악하는 능력-이해력을 기르는 훈련이 중요하다.

3. 요약정리의 습관화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은 검증과 평가의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 즉

요약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기억력이 비상하게 좋은 학생이 아니라면 대부분 이 방법이 효과적이다. 요약은 자기의 글로 상대방의 생각을 옮겨오는 매력적인 의사소통과정이다. 자기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생각을 해석하는 해석 능력이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해석 능력이 많이 생기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자기 생각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창의성의 기원이다. 즉 개인의 창의성은 풍성한 독서와 그 해석의 누적된 결과에 의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요약에도 전략이 있다. 자기가 읽은 문장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권할 만하다. 훈련은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문장을 문단으로 확장시키고 한 문단을 여러 문단으로 확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물론 그 역도 가능하다. 여러 문장으로 된 요약을 몇 차례의 과정을 거쳐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과정도 재미있는 방법이다. 독서 환경에 따라서, 친구들과 모둠을 만들어 게임하듯 같이 요약해보는 것도 생

각할 수 있다.

가령 카프카의 소설 「변신」을 읽고 요약하는 게임을 한다고 가정하면, A는 「현대인의 소외 문제를 환상적 기법으로 다룬 이야기」라고 정리하고, 친구 B는 「평범한 직장인의 삶이 갑자기 어수선한 날 갑자기 흉측한 벌레로 변한다. 그는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는 경멸의 대상이 된다. 그 누구의 관심과 사랑도 받지 못한 채 그는 마침내 서서히 죽어간다. 그의 몸은 비록 감중이었지만 사람의 의식이 살아 있다는 게 문제적이다. 이는 곧 우리 사회에서 버림받는 모든 개개인의 소중한 인간정신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고 정리하는 식이다. C가 있다면 그 뒤를 이어나가면 된다.

이렇게 자기 손으로 정리를 해야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보다 선행해진다. 텍스트 이해야 말로 논술의 기본이라는 점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윤재웅
시험대 국어교육과 교수
2008년 논술연구위원

18일간 전국일주, 삼천리 달린 심규철 군



우리 신문에서는 7월 8일부터 25일까지 18일 동안 자전거로 전국일주를 한 심규철(정보통신공2) 학생의 글을 실는다.
서울에서 강원도 경상도를 거쳐 전라도 충청도까지 달린 여행 거리는 대략 1,630km, 하루 평균 95km를 달린 셈이다.



여행루트

서울 → 광주 → 이천 → 충주 → 인동 → 영덕 → 포항 → 경주 → 울산 → 부산 → 진해 → 진주 → 평양 → 순천 → 보성 → 해남 → 목포 → 고창 → 김제 → 군산 → 대전 → 서산 → 수원 → 서울



전라남도 해남

잠음을 실은 자전거는 오늘도 달린다



▲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



▲ 경상북도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

난 꿈이 많은 사람이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경험하고픈 것도 많고 욕심도 많다. 꿈이 많기 때문에 난 그 꿈들을 보며 살아간다. 그 꿈들 중에 하나인 자전거 전국일주. 자전거로 우리나라의 국토를 일주하는 것. 이것은 지난 10년동안 내 머릿속을 간질이던 하나의 주된 주제였다.

그동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업에 치이느라, 대학교 1학년 때에는 술문화에 찌든느라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군대에서 생각한 많은 시간이 다시 내 꿈을 생각나게 하였다.

기회는 이번 여름방학이 마지막이었다. 물론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 4학년 때에는 학업에 치이겠고 그 뒤에는 직장, 또 그 후에는 가족 때문에 이렇게 여행을 할 틈이 전혀 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이번 여름방학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그냥 관광처럼 여기 저기를 기웃거리면서 하는 게 아닌, 말 그대로 전국일주를 하는 게 이번 여행의 목표다. 아직 가보지 못한 유명한 관광지나 나중에 차를 타고 올 수도 있으므로 지금은 그냥 단순히 자전거와 내 다리의 힘만으로 우리나라를 한 바퀴 도는 것에 의미를 가졌다. 그에 따라 일정과 목적지 등을 결정하였다. 출발

일은 7월 중순경에 잡았다가 장마가 온다는 말에 7월 말로 잡았는데 너무 더운 것보다는 차라리 비를 맞는게 낫다 싶은 마음에, 또 빨리 출발하고 싶은 마음에 7월 8일에 가기로 결정을 했다. 자전거 타이어에 펑크가 날 상황을 대비해 타이어를 때우는 법도 익혔다.

모든 준비를 끝낸 출발 당일.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며 여행의 첫 발을 내딛었다.

처음 며칠간은 대화 할 친구도 없이 혼자 출발한 여행이라 쓸쓸했지만, 들르는 도시마다 군대 또는 사회에서 쌓은 내 인맥의 결과물들이 나를 환영해 주었고, 또한 혼자 하는 여행의 즐거움을 느낀 후로는 더 이상 쓸쓸하지도 않고 오히려 즐거워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출발하고 싶을 때 출발하는 이런 게 바로 혼자 하는 여행의 묘미이지 싶다.

그리고 도중에 나 말고 여행하는 사람들도 만나는 재미도 쏠쏠하다. 여행을 하다 보니 나같이 혼자서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2명 또는 그 이상 단체로 여럿이서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 사람들과 어울려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 격려를 해주니 힘도 더 나는 듯 하였다.

물론 혼자 하는 여행이 힘들었던 적도 있다. 다쳤을 때다. 여행 4일째에 다쳐서 여행 끝날 때까지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그 당시엔 괜히 혼자 왔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다. 정말 여행도 포기하고 싶은

정도로 많이 아팠지만 계속 견디면서 여행을 하다 보니 어느새 상처에도 적응이 돼서 손조롭게 여행을 끝마칠 수 있었다. 정말 아플 때 주위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힘들구나 라고 절실히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견디고 여행을 끝마치니 더욱 보람있었다.

이번 여행을 다니면서 추천하고픈 곳을 꼽는다면 나는 땅끝 마을을 한번 가보라고 하고 싶다. 땅끝 마을은 정말 볼 것이 없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의 멋진 경관과 바다들이 정말 좋았다. 또한 볼게 없다 뿐이지 그곳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면 거기를 꼭 둘러야 한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아도 그곳에서 찍은 사진을 보았을 때 가장 기억이 선명하게 남았다. 남들한테 이야기거리도 되고 말이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는 생각 이상으로 멋진 곳이 많다는 점, 그리고 아직도 발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라는 점과 그러면서도 자연환경이 많이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다. 거기서 나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또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가질 수 있었다.

다들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꼭 우리나라가 아니어도 혼자서 자전거 여행을 해보기를 추천한다. 정말 평생 잊혀지지 않을 여행이었다.

자전거 여행기 : blog.paran.com/skcskb
심규철(정산대 정보통신공2)

자전거 여행, 알고가면 좋아요

준비물

자전거-개리피셔(너무 나쁘면 안 되고 선수급으로 좋을 필요 없음), 자전거 공구셋(펌프, 펑크패치, 본드, 6각렌치 등), 텐트, 지도, 여벌 옷, 수건, 비닐 봉지, 자전거 장비(슈트, 고글, 장갑, 버프-바람이나 먼지를 막기위해 쓰는 두건, 운동화), 시계, 핸드폰, 핸드폰 충전기, 이어폰, 휴대용 나이프, 필기도구, 우산, 우의, 샌달, 세면도구, 선크림, 상비약

여행 경비

자전거 : 50만원
자전거 공구셋 : 3만원
유니폼 및 장비 :
고글 5만원
장갑 빌립
슈트 상하의 11만원
버프 5천원
신발 7만원
선크림 : 2만원
숙박비 : 하루 5~7천원 × 17
간식비, 음료수 : 하루 3~5천원 × 18

자전거 비용을 제외한 총 경비 65만원
하루동안 3만 5천원 정도 사용.

정리=이승이기자 thispaper@dongguk.edu

2007 한가위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행사안내

가게 귀향버스
가. 행사기간 : 2007. 9. 15(토) ~ 9. 19(수) / 10일간
나. 운행시간 : 행사기간의 오전
다. 귀향버스 : 2007. 9. 20(목), 9:00시 / 9:00출발
라. 귀향노선 : 영일출판사지점 (주소: <http://dgucop.dongguk.ac.kr>)
마. 귀향버스 접수방법
1. 인터넷 : <http://dgucop.dongguk.ac.kr>
2. 현장접수 : 상륙면 앞
3. 전화문의 : 20%추가할인
※ 당일 도시락, 기념품등을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2. 한가위 한마당 행사
가. 행사일시 : 2007. 9. 20(목), 11:00 ~ 16:00시
나. 행사주최 : 생활협동조합 / 송파분회
다. 행사내용 : 전통문화, 음식체험, 참가취득상품 판매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생활협동조합

정각원 토요일법회

주말마다 가까이서 부처님 만나는 기회

현직 불교대학 교수들이 부처님 탄생에서부터 현대불교의 세계적 흐름까지 불교 전체에 대한 안목을 키워드립니다. 수행자 스님들의 수행법과 살아있는 생활법문이 여러분의 삶을 즐겁고 향기롭게 합니다.

법회 안내 :
시 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11월 15일부터
장 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법당
대 상 : 일반인 및 유가족
개원법회 : 2007. 9. 15(토) 09:30 ~ 11:00
초보법사 원운 큰스님(동국대 역경원장)
※ 법회에 오신 분들에게는 108명주와 법요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동국대학교 정각원

정각원 주말 정기 법회 (불교 대강좌)

■ 시 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 장 소 : 서울캠퍼스 정각원 법당
■ 대 상 : 일반인 및 유가족
※ 개원법회 : 2007. 9. 15(토) 09:30 ~ , 초법사 원운 큰스님(동국대 역경원장)
※ 법회에 오신 분들에게는 108명주와 법요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 법회 및 강연 일정

월	일	주 제	강·법사	비고
9	15(토)	개원법회	원운 큰스님	동국대 역경원장
	22(토)	부처님의 이해 I - 불교와 인도	법산 스님	불교대학원 원장
	29(토)	부처님의 이해 II - 탄생과 의미	정명조	문리대학 교수
10	6(토)	기도·생활법회	해거 스님	강강선원장
	13(토)	부처님의 이해 III - 출가와 수행	해주 스님	불교대학 교수
	20(토)	부처님의 이해 IV - 깨달음과 내용	정승석	불교대학 부학장
11	27(토)	부처님의 이해 V - 교회의 열반	계환 스님	불교대학 교수
	3(토)	성지 순례 - 불교 문화유적 답사	김창균	예술대학 교수
	10(토)	불교의 수행 I - 간경과 독송	김호성	불교대학 교수
12	17(토)	불교의 수행 II - 불교의 수행	성본 스님	불교문화대학 교수
	24(토)	불교의 수행 III - 수행의 구조	정원 스님	불교대학 교수
	1(토)	기도·생활법회	진옥 스님	석천사 주지
2008.1	8(토)	불교의 수행 IV - 염불수행	보광 스님	불교대학 교수
	15(토)	불교의 수행 V - 선 수행	법산 스님	불교대학원 원장
	22(토)	불교문화 - 불교와 한국 전통문화	김상현	문과대 교수
2	29(토)	세계 속의 불교 - 현대 세계불교	김용표	불교대학 교수
	5(토)	기도·생활법회	정각 스님	전 조계종 포교원장
	12(토)	초기불교의 이해 I - 초기불교와 교단	안양규	불교문화대학 교수
2008.2	19(토)	초기불교의 이해 II - 경전 성립과 계율	신성현	불교대학 교수
	26(토)	초기불교의 이해 III - 주요 교설1	김종욱	불교대학 교수
	3(토)	초기불교의 이해 IV - 주요 교설2	황순일	불교대학 교수
2008.3	10(토)	부파불교의 이해 I - 부파불교 교단	고영실	불교대학 교수
	17(토)	부파불교의 이해 II - 부파불교 특징	유재선	불교대학 교수

2007. 9.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정각원